



## 파절된 임플란트의 분석과 처치



김성현\*, 한종현, 정영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영동세브란스

1969년 Bränemark에 의해 상업용 순수 타이타늄을 이용한 골유착성 임플란트의 개념이 소개된 이후, 임플란트는 무치악 환자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로 부분 무치악과 single tooth 의 대처까지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져고 높은 임상적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적응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치과 임상에서 뺄수 없는 치료의 한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골유착성 치과용 임플란트가 치아를 대처할 뛰어난 치료 방법이라 해도 그 한계성과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

임플란트 합병증은 여러 인자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3가지의 주된 병인 인자는 감염, 치유부전, overload 이고 이들은 단독으로 또는 때에 따라 중복해서 관여하고 있다. Overload에 따르는 실패 중 임플란트의 파절이 있다. 임플란트의 파절은 매우 드문 경우이나 일단 파절이 일어나면 환자나 술자에게 모두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고정체 파절 원인으로서는 디자인과 재질의 결함, 보철물의 부적절한 적합, 생리적 또는 생체 역학적 과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fixture의 파절은 marginal bone loss와 관계가 있었고 대부분이 구치부였다. 또한 parafunction habits 환자가 대부분 해당되었다. 파절이 일어나기 전에 abutment 나 gold screw 의 loosening이나 파절 경험도 있었다.

본 병원에서는 파절된 잔존 고정체를 제거한 후 wide diameter 고정체로 재 이식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였으며 고정체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선택, 생체 역학적인 면을 고려한 치료계획과 적절한 교합형성, 임플란트 system의 선택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